

제4절 지명의 유래와 변천

1. 읍호(邑號)의 변천*

순천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모래드리' 또는 '사평(沙平)'이라고 추측된다. 김정호는 『역도비지(輿圖備志)』(1853)에서, 순천도호부를 사평(畝平), 사평, 무평(武平)이라 했다. 그러나 『태동지지』에서는 사평·무평이라 하고, 무평(畝平)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사평을 순천의 맨 처음 읍호로 규정하였다.

남내동의 조천석은 옥천 옥천교 남쪽의 꺼진 물목을 고래목(鯨項)으로 부르고 있으며, 순천 시립도서관 소장 옛 지도에도 경동(鯨洞)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도 물길 이동의 흔적이 뚜렷하다. 또 부사 성이호(成彝鎬: 1869~1871)가 동천 가운데 모래톱에 지은 우선정(遇仙亭)이 모래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두 내의 강터는 1935~1940년 제방공사가 끝나기 까지 모래가 차지한 면적이 엄청나게 넓었다고 한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강바닥이 높아지면서 풍덕동 양쪽 들판에 물이 찌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1962년 8월 큰 폭우로 피해가 엄청났던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 '모래드리'·'사평'의 지명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별량면과 인안동의 경계가 되는 검석교(檢石橋) 일대가 '사평(沙坪)'으로 검석교 체목풀이에 나오는데,¹⁾ 4km 이내의 고인돌 또는 유물 산포지가 사평(沙平)은 18개소이지만 사평(沙坪)은 2개소뿐이다.²⁾ 지형의 변화, 지대의 크기, 유적이거나 유구,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서 '사평(沙平)'이 순천시 일대의 가장 오랜 자연지명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낙안고을의 옛 이름에 대하여도 여기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체로 낙안고을의 맨 처음 터전을 별교읍의 고읍리(古邑里)로 본다. 그런데 고읍리의 마을 유지 박채수(68)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과 마을 앞 논배미 부용국민학교 변두리에 와당(瓦當)과 기왓조각, 빗살무늬토기 파편이 광범위하게 있고 마을 앞에 600년쯤 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 근처에는 도요지(陶窯趾)가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옛 집터에서 파낸 45cm² 머릿돌 2개, 45cm² 탑돌 1개를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이 마을이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증거인데, 인접한 마을의 '부숫골(金村)'은 고읍리의 분촌(分村)으로서, '부숫골'의 이름이 고읍리로 바뀌면서 분촌에 원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수'는 '부스>부쇠(火鑊)>부수(제주·평북)/부시'의 음운변화를 거친 것이다.³⁾ 마한 54소국의 부스분야국(不斯瀆邪國)의 '부스'나,⁴⁾ 백제 분차군(分嵯郡)을 일명 부사(夫沙)라 한 것이 모두 낙안의 옛터인 부숫골과 관계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마한시대의 낙안·별교지역 일원이 부스분야국이었고, 삼국시대의 낙

* 제4절 1항목은 송병수(宋柄秀) 집필임.

1) 趙顯範, 『江南樂府』(甯道文化研究』 제2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87).

2) 순천대, 『順天市의 文化遺蹟』, 1992, 73쪽.

3) 양주동, 『고가연구』, 1942, 654쪽.

4) 陳壽,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

안고을이 분차군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좀더 자세한 고증을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한다.

백제 초기 근초고왕 때 부스분야국이 부사군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왕의 사비성시대에 와서 치소(治所)가 지금의 고읍에서 낙안읍성으로 바뀌면서 분차군으로 불린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백제 말기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파지성(波知城)은 『삼국사기』 지리지와 김정호의 『역도비지』에 나오는데, 분차군의 파지성은 현재의 낙안읍성을 의미한다. 660~676년에 당의 점령군이 웅진도호부 밑에 따로 7주 설치를 준비했는데 분차주가 그 하나임을 밝혀둔다.

백제 때 읍호 삼평(歙平)이 1145년(인종 23)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맨 처음 삼(●)으로 기록되었는데, 1451년(문종 1) 정인지 등이 오인하고 『고려사』에 감(歆)으로 잘못 썼다가 1454년(단종 2) 『체종실록』 지리지에 삼(●)으로 정정해서 썼다.

그런데 노사신(盧思慎) 등이 『통국여지승람』에, 신이행(愼以行) 등이 1530년(중종 23) 『린중동국여지승람』에서 『체종실록』 지리지를 보지 않은 채 『고려사』에 잘못 기록된 감평을 그대로 썼다. 순천도호부사 이수광 역시 『삼국사기』나 『체종실록』 지리지의 ‘삼평’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증평지』 건치에서 “본 백제 감평군은 아마 지형이 낮고 꺼져서 편편하고 넓기에 감평으로 이름지었다.”는 사족까지 붙였다. 그뒤 유형원의 『통국여지지』와 홍문관에서 펴낸 『역지도서』에서도 ‘감평(歆平)’을 그대로 썼다. 그후 김정호가 『역도비지』에서 삼평군으로 바로잡았고, 1864년(고종 1)에 『태동지지』에서 삼평의 원초적인 이름 사평(沙平)으로 고쳤다.

백제의 삼평군은 757년(경덕왕)에 승주군으로 되었으며 후백제(892~936) 박영규(朴英規)가 해룡성(海龍城 : 현재 흥내동 통천)에 성진(城鎭)을 두고 무평(武坪), 즉 현재의 대룡동(大龍洞) 물고지(沙串, 모래곶이)에 치소를 두어, 무평(武平)군의 이름으로 이전의 신라 승평군과 아울러 여산현(돌산), 해읍현(여수), 회양현(광양)을 다스렸다. 무평군은 자연지명 ‘물고지’의 ‘口’자음과, 견훤이 나라를 일으켰던 무진주(武珍州, 무들, 광주)의 ‘무’자를 딴 이름이다. 무평리(武坪里)의 이름은 현재 호적부의 제적부에 남아 있는데, 1962년 8월의 물난리로 52가구에서 7가구로 줄어들자 학동(鶴洞)으로 이름을 고쳤다.

고려로 넘어오면서 치소가 승평군으로 환원되고, 영현(領縣) 여산(廬山)이 돌산(突山)으로, 해읍이 여수로, 회양이 광양으로 읍호가 바뀌었는데, 뒤에 예종(1105~1122) 때 감무를 두고 1350년(충정왕 2)에 각기 따로 현령을 두었다. 983년(성종 2) 승주목이, 996년에 승주(昇化, 平陽) 연해군절도사가 두어지고, 1012년(현종 3) 안무사로 바뀌었다. 1018년 부유현(신라 谷城領縣, 백제 遁支縣)이 귀속되었다. 1036년(정종 2) 승평군으로, 1309년(충선왕 1)에 다시 승주목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에 순천부로 강등되어 조선시대로 넘어왔다.

앞에서 설명한 순천지역의 읍호와 치소를 이해하기 위하여 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지역의 읍호와 치소

시대 지명	삼한시대 ~ 백제초기	백제 근초고왕	사비 시대 (538~)	백제 말기	백제 멸망~ 경덕왕 16년 (660~757)	신라시대	후삼국 시대	고려시대 (983)	치소의 위치
모래드리 (沙平)	신소도국 (臣蘇塗國)	삼평군 (歙平郡, 담로계)	삼평군 (歙平郡)	"	"	승평군 (昇平郡) 별호 승화(昇化), 평양(平陽)		승주목 (昇州牧)	순천성내
물고지 (武平)							해룡성 (海龍城) 무평군 (武平郡)		홍내의 통천 대룡의 무평
통지물 (通支)			통지현 (通支縣)	"	"	곡성속현 부유현 (富有縣)	"	승주속현 부유현 (富有縣)	창촌
부숫골 (夫沙)	부스분야국 (不斯濱邪國)	부사군 (夫沙郡) 별호 부사(浮槎), 낙천(洛川)							별교고읍 (부숫골)
바디실 (波底谷)			분차군 (分崖郡)	파지성 (波知城) 분차군	분차주 분차군	분령군 (分嶺郡) 별호 양악(陽岳)	"	낙안군 (樂安郡)	낙안읍성

순천(順天)은 원래 『주역』의 “탕무혁명(湯武革命) 순호천이응호인(順乎天而應乎人)”에 나오는 말이며, 1404년 명나라 태종이 북경을 세우고 순천부라 한 데서 유래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하늘의 순리를 따른 후백제의 박영규·김충 두 장군의 공적과 고려 말 당시의 국제화 의식에 따른 것이다.

1413년(태종 13) 순천도호부를 설치했는데, 이때 부유현을 없애고 주암면에 편입시켰다. 광양현에 현감이 두어져서 독립해 나가고 돌산현, 여수현이 속현으로 남았다. 1437년(세종 13) 순천도호부에 순천진을 설치, 부사로서 병마절도사를 겸무시키고, 그 산하에 낙안·보성·광양·고흥·능주·동북·화순·구례 8읍을 묶었다.

수군은 태조 때(913~943) 만호(萬戶)를 내례포(內禮浦 : 현 여수시 봉산동)에 설치했다가, 1479년(성종 10)에 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절도영(水軍節度營)으로 승격시켜 수사(水使)를 배치하고 순천부·장흥부·낙안군·고흥(홍양)현·보성군·돌산현·광양현·방답진·여도영·사도진·발포영·녹도영·회령포영의 13진을 묶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함대를 주축으로 하여 일본의 해군을 격파했으며, 이듬해 1593년 한산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초인적인 활동으로 나라를 건졌다.

효종 때(1649~1659) 순천도호부를 순천현으로 강등시켰다가 다시 순천도호부로 환원시켰다. 1684년(숙종 10) 장흥도호부에 설치했던 전영(前營)을 순천도호부로 옮기고 순천, 낙안, 홍양(고흥), 동북,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의 군사들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1786년(정조 10) 다시 순천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이듬해 1787년 순천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김정호의 『태동지지』에는 해촌, 소안, 장평, 도리, 상사, 하사, 황전, 쌍암, 월등, 별량, 용두, 소라포, 삼일포, 여수, 율촌, 서면, 주암, 송광 18개 면의 이름이 보인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고종 32) 남원부 소속 순천군, 1896년 전라남도 순천군이 되었다. 같은 해 돌산군이 신설됨에 따라 홍양·낙안·순천·광양의 69개 섬이 거기에 이관되고, 1897년 순천군 소속 율촌면·소라면·삼일면·여수면을 나누어 여수군을 신설함으로써 면적이 크게 축소되었다. 1908년(융희 2) 낙안군을 폐지하여 낙안군의 읍내·내서·외서·동상·

동하·초상·초하 7개 면이 순천군에, 나머지 남상·남하·고상·고하의 4개 면이 보성군에 편입되었고, 1910년 곡성군 석곡면 영귀와 마전이 주암면 궁각리로 편입되었다.

1914년(일제 강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순천면(소안면과 장평면을 통합), 해룡면(해촌면과 용두면을 통합), 서면, 황전면, 월등면, 쌍암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읍내면과 내서면을 통합), 동초면(동상면·동하면·초상면·초하면을 통합), 별량면, 도사면(도리면·하사면을 통합), 상사면의 14면으로 편성했다. 1929년에는 동초면의 호동·장양·회정·봉림·연산을 보성군 별교면에, 동초면의 병운·용준을 별량면에, 동초면의 이곡·신기를 낙안면에 편입시켰고, 1931년에 순천면이 순천읍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후 1949년 순천읍이 순천시로 승격되었고, 도사면과 해룡면(연향·왕지·조례)이 시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1면은 승주군 소속이 되었다. 1964년 순천시의 33개 법정동을 16개 행정 동회로 조정했다. 1973년 승주군 쌍암면 석흥리가 낙안면에,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가 승주군 송광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 곡성군 석곡면 운용리가 승주군 주암면에 편입되었고 1985년 쌍암면이 승주읍으로 개칭되면서 승주군의 치소가 되었다. 1987년 해룡면 북성리 일부가 광양군 광양읍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이 재통합하여 순천시라 하고 16개 동, 1개 읍, 10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